

“경주 토함산 일대 3곳서 ‘땅밀림’ 진행 중”...산사태보다 위험

녹색연합, 황용동 2곳
문무대왕면 범곡리 1곳
경주시, 지방도 945호선
사전통제...대책 수립

경주무장·함월·토함산 일대 3곳에서 ‘땅밀림’이 진행되고 있다는 환경단체 분석이 나왔다. 17일 녹색연합은 ‘경주 대형 산사태 대책 보고서’를 통해 경주 무장·함월·토함산 일대 73곳에 산사태가 발생, 이 중 3곳에서 땅밀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땅밀림은 땅속에 물이 차면서 산이 밀려 내려가는 현상으로 산사태보다 큰 피해를 낼 수 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땅밀림이 확인된 곳은 경주시 황용동 2곳과 문무대왕면 범곡리 1곳이다. 이 중 황용동 산 일대 1곳에서 확인된 땅밀림 진행 면적만 3700평 가량으로 945번 지방도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주 토함산 정상에서 문무대왕면 범곡리 마을로 이어지는 곳에서도 땅밀림이 확인됐

는데, 이곳은 지난 5월 녹색연합이 확인한 산사태 발생지역 24곳 중 피해 규모가 가장 큰 현장바로 옆이라고 전했다. 녹색연합은 “경주시와 경북도는 경주 산지에서 나타나는 대형 산사태 땅밀림의 위험성을 정밀 조사하고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대형 산사태인 땅밀림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문화유산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경주시는 최근 토함산 3곳 땅밀림 현상 등 산사태 피해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경주 국립공원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 산림

청, 경상북도,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합동 조사를 면밀히 펼쳐 산사태 위험지역 73곳을 확인했다. 합동 조사 시 산림기술사, 환경단체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해 당시 땅밀림 예상지 3곳도 사전에 발견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집중호우가 예보될 경우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주민 대피를 진행하고, 지방도 945호선 사전통제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인 안전대책 방안을 수립 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



본사인사
이은진(구미담당)
의원면직 7월3일자

하계 휴가 관계로 신문 쉽니다
8월 5일에 다시 만나요~

2024 대구광역시 28년째
대구청영사관
골프코르스찬치
D-6

iMBank logo and advertisement for the new name 'iM뱅크' (iM Bank). The text includes: '대구은행의 새로운 이름, iM뱅크', '아주 색다른 금융의 시작', and '더 크고, 더 넓은 금융 세상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새로움을 그린다'. The background features a blue and green abstract graphic.

여름 여행 어디로? 당연히 경북... 그곳에 別味가 있다.

〈별미〉

경북도 지역의 맛과 멋 대표하는 으뜸음식점 24곳 최종 선정 발표



천년의 문화전해의 자원이 있는 곳이 경북이다. 경북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넓은 고장이다. 여행을 떠나면, 그 분위기를 한층 올려주는 것들이 있다. 아름다운 풍경의 관광지도, 멋진 숙박시설도 여행의 낭만을 한껏 올려준다. 무엇보다도 여행의 낭만은 그 지역에서 먹어야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비로소 여행의 진정한 묘미를 경험한다.

관광지의 유명 맛집들은 여행자들의 기대와 함께 늘 문전성시다. 관광지에서 여유를 만끽해보자. 울여름에는 푸른바다, 울창한 산림, 자연휴양림, 계곡이 있는 경북으로 가보자. 그래서 경북에서 지역 향토별미를 함께 즐기자. 영덕 대게, 청송 주왕산 달기 약수탕 등등 별미 음식은 무수히 많다. 쉽게 접할 수 없는 특색 있는 음식도 수도무룩하다. 그게 바로 여행지의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로 배가 행복을 채우는 식도락 여행이다. 수십 년 단골손님들의 경험담을 통해 명성이 이어지고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같은 SNS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서 맛집 매니아들이 몰려드는 곳이 대물림 맛집이다. 십년간 철학과 전통을 이어 오는 대물림 맛집이 여러 곳이다. 대를 잇는 자부심과 주인장의 맛에 대한 고집이 느껴지는 경산 솔매기식당은 직접 만든 국산 콩두부와 달짝지근한 호박전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어 가고 있다. 닭 국물이 담백하고 고소한 달기약수백숙이 유명한 청송에는 백숙과 닭 딱갈비를 3대에 걸쳐 40년째 이어 오고 있는 서울여관식당이 있다. 대게와 물곰탕이 유명한 울진에도 군청 앞에서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삼계탕을 끓이고 있는 만나삼계탕이 있다. 김천역 앞에는 80년을 바라보는 정통일식 초밥집이 있다. 1942년 할아버지가 시작한 가게를 3대에 지켜오고 있는 대성암이다. 영천 대표 음식 육회와 맛을 지켜오는 편대장영화식당과 화평대군, 문경에서 정식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1호 어부였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어 받은 영남매운탕집, 예천 용궁순대와 오징어연탄구이로 널리 알려진 박달식당과 단골식당 등 대를 이어오는 향토 맛집이 도내에는 30곳이 넘는다. 모두가 저마다의 스토리가 있고 가까운 주위에는 가볼만한 곳이 많다. 때문에 경북도는 지역의 맛과 멋을 대표하는 으뜸음식점 24곳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으뜸음식점 제도는 위생을 기본으로 맛과 서비스가 우수한 음식점을 발굴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선정 방식은 위생 등급제 '좋은' 이상 업소를 시군이 추천하면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 평가를 통해 결정한다. 도는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식품 관련 교수와 외식사업 관련 전문가로 심사

위원을 구성해 1차 서류심사를 진행했다. 2차 현장 심사는 고객으로 가장한 심사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체험 후 평가하는 암행 평가원 형식으로 5월까지 실시했다. 그 결과 24개소가 으뜸음식점으로 새롭게 지정됐고 앞으로 2년 동안 자격을 유지한다. 이로써 도에는 기존 지정업소 18개를 포함, 총 42개 으뜸음식점이 운영된다. 도는 으뜸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에 인증표지판 및 지정서 교부, 업소별 맞춤형 위생 물품, 교육 등을 지원하고 유명 방송인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영상을 업소별로 특색있게 제작할 계획이다. 향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최근 음식과 여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미식 관광산업이 확장되고 있다"며, "경북의 맛을 안심하고 마음껏 즐길 수 있게 철저히 관리해 관광객이 경북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농업기술원도 2021년 '농가맛집 특화밥상 프로젝트' 품평회를 열고 지역의 다양한 특산물을 활용해 1시간 1특화밥상을 개발했다.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맛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북형 민생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역 내 시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담은 특화밥상 23종과 간편 조리세트(밀키트) 및 도시락 49종도 함께 개발했다. 작물 이름만 들어도 지역이 떠오르는 부추, 마늘, 해방콩 등을 적극 활용했으며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홍산마늘, 주식재료를 활용하기 쉽지 않은 참외 등도 특화밥상에 담았다. 지역별 특화된 식재료를 활활 탄성한 특화밥상 개발 스토리와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농가맛집 이야기를 수록한 책자한권을 차례마다도 함께 전시했다. 기업생태환경정통계(2019)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의 5년 생존율은 20.5%로 나타났으나 지역 농가맛집의 창업 후 운영율은 80.5%에 달한다. 지역생산 농산물을 사용해 소비자들로부터 건강과 안전, 농촌의 정서를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농가맛집은 지역향토음식을 발굴해 상품화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농가형 의식문화 공간으로 도내 25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제철 농산물을 만든 특화밥상을 현장에서 맛보고 경험하기를 바란다"라며, "특화밥상으로 농가맛집이 더욱 활성화되고 농촌관광과 연계해 찾아오는 경북, 머무르는 경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창명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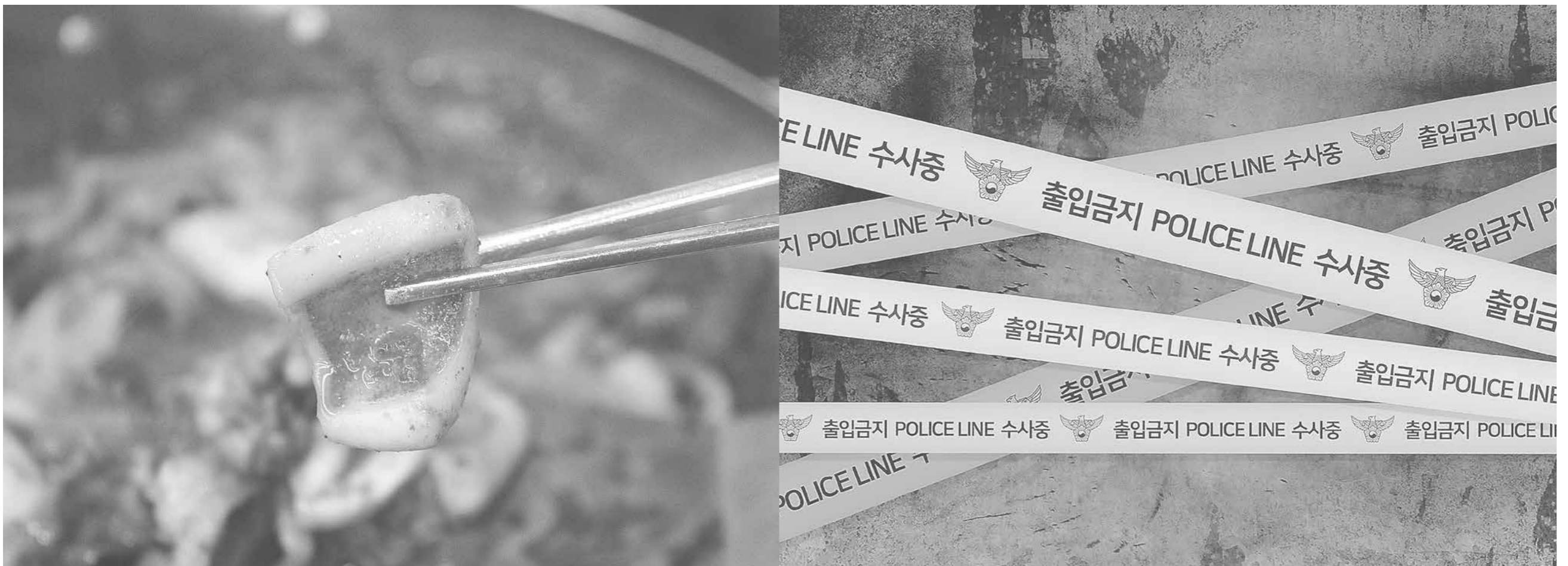
2024년 으뜸음식점 지정 현황

연번	시군명	업소명	주메뉴	지정년도	지정상세	비고
1	포항시	금산삼계탕고디탕	삼계탕	20년	재지정 : 24년	
2	포항시	영주매운탕	매운탕	21년	재지정 : 23년	
3	포항시	대북삼계탕	삼계탕	21년	재지정 : 23년	
4	포항시	포항고깃집 엄지척	포항홍미삼합	24년	24년 신규	
5	경주시	아사달	차돌된장찌개&떡갈비 반상	24년	24년 신규	
6	김천시	우천냉면	냉면	18년	재지정 : 24년	
7	김천시	시니어클럽 소소한한끼	비빔밥	23년	23년 신규	
8	안동시	금강옥	한우구이, 육회비빔밥, 곤드레밥	18년	재지정 : 24년	
9	안동시	경복궁	갈비살구이, 육회비빔밥	24년	24년 신규	
10	상주시	새감포복집	이구수육	22년	재지정 : 24년	
11	상주시	러브리또	불고기 삼백부리또	24년	24년 신규	
12	문경시	우정가든	약돌 삼겹살	21년	재지정 : 23년	
13	문경시	새재할매집	더덕석쇠구이 정식, 고추장 양념 석쇠구이 정식	21년	재지정 : 23년	
14	문경시	산동네청국장	청국장	22년	재지정 : 24년	
15	문경시	김태희청국장	청국장찌개	23년	23년 신규	
16	문경시	남원추어탕	추어탕, 여탕	23년	23년 신규	
17	문경시	마당바위	마당바위더덕정식	23년	23년 신규	
18	문경시	새재산장살약가든	십전대보오리백숙	23년	23년 신규	
19	문경시	벨라테라	자연송이파스타	24년	24년 신규	
20	경산시	더반	대추한정식	23년	23년 신규	
21	의성군	청호가든	메기찜, 메기매운탕	22년	재지정 : 24년	
22	청송군	청송영양축산농협한우프라자	한우사과양념구이	17년	재지정 : 23년	
23	청송군	농가맛집 두연	두부전골정식	21년	재지정 : 23년	
24	청송군	웰빙하우스	토종재래닭코스	22년	재지정 : 24년	
25	청송군	주왕산가든	명품한우불고기	23년	23년 신규	
26	청송군	봉성밥상	한정식	24년	24년 신규	
27	청도군	청도숯불갈비	청도복숭 돼지갈비	23년	23년 신규	
28	청도군	본가한정식	본가 소갈비찜 정식, 본가정식	24년	24년 신규	
29	고령군	고령금산한우	한우갈비살	22년	재지정 : 24년	
30	성주군	고방찬 남경식당	등겨장 석쇠구이	21년	재지정 : 23년	
31	성주군	감골식당	건어물찜	22년	재지정 : 24년	
32	칠곡군	늘봄날	돌솥비빔밥, 흑돼지구이	21년	재지정 : 23년	
33	칠곡군	거정숯불갈비	돼지갈비	22년	재지정 : 24년	
34	예천군	언덕숯불	토종한방참깨백숙	19년	재지정 : 23년	
35	예천군	제주북집	버섯야채 북어불고기	20년	재지정 : 24년	
36	예천군	한국관복어집	황복야채불고기	22년	재지정 : 24년	
37	예천군	황소네집	황소네집모듬	22년	재지정 : 24년	
38	예천군	가자한우물회	한우물회	23년	23년 신규	
39	예천군	백번고기집본점	육회비빔밥	24년	24년 신규	
40	예천군	오르비	한우불고기 정식	24년	24년 신규	
41	예천군	용궁순대	순대국밥	24년	24년 신규	
42	봉화군	심터민물매운탕	능이버섯모듬전골	22년	재지정 : 24년	



◀ 예천 용궁순대 ▲ 영덕대게

경북서 또 터진 농약테러...경북경찰 전담팀 꾸려



4명 중 3명 인공호흡기 치료
위세척액서 농약 성분 검출
10년새 4건 농약테러 터졌다



경북에서 농약 테러 사건이 또 터졌다. 잇달만 하면 터지는 사건이다. 2018년 포항에서 발생한 이른바 '농약 고등어탕 사건'이 일어난 지 6년만이다. 이 사건은 마을 내부 갈등 끝에 한 주민이 고등어탕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청송에선 '농약 소주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주민간 불화 끝에 소주에 농약을 넣었다. 용의자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음독해 숨졌다. 2015년 상주시 공성면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사건은 무려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기도 했다. 마을 주민이 화투놀이를 하다 마을회관 냉장고에 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재판 결과가 확정됐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는 오리고기 농약사건이다. 농약 성분이 검출된 오리고기를 먹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봉화군 주민들은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1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초복을 맞아 봉화읍 내성4리 여성경로당 회원 41명이 한 음식점에서 오리고기를 먹었다. 식사를 마친 회원들 중 2명은 봉화군 노인복지관에서, 한 명은 경로당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안동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다른 한 명은 당일 오후 인근 병원에서 치료 후 상태가 악화돼 이튿날 안동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모두 호흡 마비, 침 흘림, 근육

경직 등의 증세를 보였다. 심정지 상태로 안동병원으로 이송됐던 70대 여성은 응급처치 후 맥박과 호흡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의식은 없는 상태. 현재 의식저하, 호흡마비 증세를 보여 3명이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주민 4명은 여성경로당 회장과 부회장, 회원 2명 등이다. 이들은 다른 회원들보다 음식점에 늦게 도착하면서 자연스럽게 5인석 테이블에 동석해 함께 음식을 먹었다가 불변을 당했다. 같은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었던 나머지 1명은 아직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원한 주민들 위세척액에서는 에토펜프록스, 티부포스 등 2가지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병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환자들의 의식이 없는 상태"라며 "약 조절 등을 통해 치료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도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총 57명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특징을 위해 다각적으로 수사 중이지만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는 못한 상태"라며 "현장 CCTV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사건 경위를 명확히 밝혀겠다"고 말했다. **■10년새 '농약테러' 4건 공통점** 경북에서 2015년부터 최근 10년 간 농약이 들어 간 음식물이나 음료 사건이 총 4건 발생했다. 사건은 △2015년 상주 농약 사이다 △2016년 청송 농약 소주 △2018년 포항 농약 고등

어탕 △2024년 봉화 농약 오리고기 등이다. 경북에서 발생한 첫번째 농약 음식물 사건은 2015년 발생한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이다. 이 사건은 농약 음식물 사건 중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이기도 하다. 초복 다음날이었던 2015년 7월14일 오후 2시43분께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7명 중 6명이 냉장고에 든 사이다를 나눠 마셨다가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졌다. 범인은 당시 유일하게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박모(91·여)씨로 밝혀졌다. 박씨는 화투 놀이를 하다 다툰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마을회관 냉장고에 들어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박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국내 최고령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2016년에는 '농약 소주 사건'도 있었다. 2016년 3월9일 오후 9시40분께 경북 청송군 현동면 한 마을회관에서 주민 2명이 농약이 든 소주를 마셨다. 결국 주민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사건의 용의자 A(70대)씨는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와 마을 주민 간에는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포항에서는 2018년 4월21일 '농약 고등어탕'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침 식사로 준비한 고등어탕을 먼저 먹은 주민 1명이 구토 증상을 보였다. 고등어탕에는 저독성 농약 150㎖가량이 들어있었다. 이 사건의 범인은 주민들과 갈등이 있던

B(60대)씨였다. 앞선 3건의 사건 이후 6년만에 또 다시 봉화에서 '농약 오리고기' 사건이 발생했다. 봉화군에서는 지난 15일 초복 오리고기를 먹고 식중독 의심 증세로 쓰러진 주민 4명의 몸 속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마을 주민 42명은 이날 초복을 맞아 한 식당에 모여 오리고기를 먹었다. 이중 병원에 입원 중인 주민 4명은 5인석에 앉아 오리고기를 먹은 주민들이다.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4명은 모두 60~70대 여성들이다. 이들은 여전히 중태이지만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개 사건의 공통점은 '음식물이나 음료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는 것과 '마을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인 장소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봉화 농약 오리고기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의 사건에서 공통점은 '사건 발생이 범인과 마을주민들 간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봉화경찰서는 사건 발생 직후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2개팀(15여명)이 봉화경찰서에 투입됐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적으로 오리고기에 농약을 넣었을 것'으로 보고 다각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용의자 특징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 4명의 건강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용의자 특징을 위해 폐쇄회로(CC)TV 분석 및 주변인 탐문수사 등 다각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아직까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깜깜한 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대구광역시일보는
독자의 마음까지
생각합니다.

...

광고·구독문의
053-253-0000

달성군 구지면 노인회 분회장 이·취임식

(사)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 구지면 분회는 17일 구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지면 분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최재훈 달성군수, 군의회 의원, 윤영현 대한노인회

달성군 지회장 및 구지면 각 경로당 회장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서태고 신임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임하는 제22대 박병록 분회장은 “지난 임기동안 노인회 분회 발전을 위

해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신 경로당 회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함께 힘써온 회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취임하는 제23대 서태고 분회장은 “노인복지의 향상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구지면 분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북구청, ‘함지훅, 들썩들썩’ 지치지 않는 열정속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주민자치 활성화 만드는 데 큰 역할

북구청은 ‘함지훅, 들썩들썩’ 다함께 지치지 않는 열정속으로 빠져든 ‘2024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6일 어울아트센터 함지훅에서 배광식 북구청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펼쳐졌다.

이번 대회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고 지역 사회의 문화 및 교육 활동을 장려하고, 주민들 간의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울아트센터에서 펼쳐진 대회는 노래·연주 부문과 풍물·댄스 부문 2개 분야로 나눠 총 10개 팀이 참가했다.

관음동의 ‘원더풀나타팀’을 시작으로 풍물놀이, 차밍댄스, 오카리나-하모니카 연주, 고전 무용, 춤바댄스, 기타 연주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였다.

열띤 경연을 펼친 결과 노래·연주 부문은 관문동 관문 오카리나팀이, 풍물·댄스 부문에서는 고전무용을 선보인 복현2동 빛나래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다.

그 외 2023년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수상팀인 노원동 노원노래교실 합창단 팀, 태전2동 목련무용단팀과 초청가수 황태자의 축하공연으로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선사했다.

이성장 북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은 “남다른 열정으로 오늘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생활자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올해 열여섯 번째로 개최되는 ‘북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뜨거운 열정과 성실한 노력으로 빛내주신 모든 참가자와 주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팀이 보여준 다양한 무대와 실력은 우리 지역 사회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며,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우며 서로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최우수상을 수상한 두 팀은 오는 9월에 개최될 대구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조미경 기자**



군위군, 지속가능한 먹거리 순환도시 비전 선포

먹거리위원회 출범식 개최

군위군은 지난 16일 2024년 군위군 먹거리 계획 비전 선포 및 군위군 먹거리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군위군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건강한 군민, 지속가능한 먹거리 순환도시 군위”를 주제로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먹거리 전문가와 로컬푸드 농가 100명이 참석했다.

군위군 먹거리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 먹거리위원 위촉, 먹거리기본권보장 선언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군위군 먹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희석 부군수는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행사 중 발표된 군위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선언문은 모든 군민이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도록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 교육, 고용, 환경 등의 정책을 통합하여 군민 행복을 증진하며, 지역 순환경제를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위군 먹거리계획은 지역 내외 관계적 경제 창출로 군민의 건강권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루는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군위군은 지속 가능한 먹거리 시스템 구축의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김진열 군수는 “오늘 주신 귀중한 의견들이 반영되어 군위군의 먹거리 계획이 더욱 발전하고, 실질적으로 이행되어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며, 군위군 먹거리위원회의와 협력을 당부했다. **박재성 기자**

동구청, 고려대학교 건축학과와 업무협약

지역개발 공공디자인 사업 발굴

동구청은 지난 15일, 고려대학교 건축학과와 ‘지역개발 공공디자인 사업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동구만의 특색있는 공공디자인 사업 발굴을 위해 고려대학교 건축학과와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우수한 인재들의 새롭고 창의적인 공공디자인 아이디어를 제공받았다.

협약에 따라 동구청은 고려대 건축학과에 공공디자인 개선 연구 대상지 제공과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고 고려대학교 건축학과는 동구 지역 현황조사 결과 및 공공디자인 활용 방안 연구성과를 제공하기로 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공공디자인 활성화는 도시 미관과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 활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행선 분야인 만큼 국내 최고 명문대학교인 고려대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동구만의 특색있고 우수한 공공디자인 모델이 개발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달성군, 7월 찾아가는 청렴캠페인

달성군은 지난 16일 다사읍에서 청렴문화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찾아가는 청렴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달성군 다사읍 행정복지센터의 다사읍장을 비롯한 다사읍 직원들이 참여했다.

조직 내 갑질을 근절하고 수평적이고 탈관위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공직사회 내 청렴 인식을 높이고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 투병하고 신뢰받는 청렴 달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은 지난 2월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부서별 청렴도 향상방안 및 전 직원 대상 청렴 특별교육 개최, 청렴 메시지를 담은 감성중심의 아가펠라·청렴콘서트 개최,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군수와 직원 간담회 등 반부패 청렴 의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조여은 기자**

서울역 대구경북기업인라운지 수도권 비즈니스 거점

라운지 이용자 꾸준히 증가, 15년간 누적 인원 14만 명 돌파



‘서울역 대구경북기업인라운지’가 2009년 6월 전국 최초로 운영을 시작해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했다.

지역 기업인들의 각종 비즈니스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원하고, 대구상공회의소와 경북상공회의소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역사 내 4층에 위치한 대구경북기업인라운지는 지역기업인,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회의, 비즈니스 상담, 출장 휴식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회의테이블과 함께 빔프로젝터, 컴퓨터, 복사기 등 각종 사무용품은 물론 간단한 음료와 다과도 준비되어 있어 지역 기업인들의 수도권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5년간 끊임없이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운영해온 결과 이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총 이용자 수 1만4284명으로 2009년 운영 첫째 이용자 수 7223명에 비해 큰 폭

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 라운지 이용자 수는 이미 7448명을 돌파해 연말까지 지난해 이용자 수를 넘어설 전망이다. 15년간 총 누적인원은 14만4506명에 달한다.

상주인력 배치, 서울역 빈 공간 확보 등의 어려움에도 지역 기업인들의 비즈니스와 편의를 위해 대구경북기업인라운지를 개설한 이후 2013년 5월 용산역 광주-전남-전북 비즈니스 라운지, 2015년 1월 서울역 부산-울산-경남 비즈니스 라운지가 각각 개설되는 등 대구경북기업인라운지는 타 지자체에도 기업 지원 서비스 부문에 있어 좋은 귀감이 됐다.

안중근 대구시 경제국장은 “지나온 15년처럼 향후에도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에 든든한 지원군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수성구, 찾아가는 어린이 공연 ‘히어로 투비’ 선보여

‘투비에게 맡겨줘!’란 제목 환경의 중요성 고찰



지구를 아프게 하는 ‘몰라몰라 박사’를 물리

치기 위해 수성구 캐릭터 ‘투비’가 어린이들을 찾아간다.

수성구는 ‘히어로 투비’라는 콘서트 아래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천방지축 환경 히어로 - 투비에게 맡겨줘!’ 어린이 공연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투비 = SAVE THE EARTH’를 슬로건으로 환경 히어로 투비와 어린이들이 함께 지구환경을 지켜나가는 관객소통형 공연으로 진행된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투비송 안무 배우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올바른 분리배출 체험 △배우들의 재미있고 생동감 있는 연

기 등 다채로운 내용을 담아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연 후에는 투비와 함께하는 포토타임(투BE HAPPY)타임을 운영해 어린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앞으로 히어로 투비는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108개소를 찾아 5,00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을 갖는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찾아가는 공연을 기회로 투비와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친밀해지고 함께 즐겼으면 좋겠다. 앞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히어로 투비’의 활약을 기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중구청, 2024 대구 경성감영 콘페스타 개최

중구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경성감영공원에서 ‘2024 대구 경성감영 콘페스타’를 개최한다.

‘2024 대구 경성감영 콘페스타’는 북성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중구청이 주최하고 (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해

경성감영공원을 무대로 한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어우러진 콘텐츠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행사는 오는 19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무대 위에 마련된 대형화판 위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화적 상상력이 가득담은 드로잉 쇼인 ‘라

이브드로잉’과 다양한 코스프레와 함께 라이브 공연을 진행하는 ‘코스프레 퍼포먼스 쇼’가 진행된다.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에는 아코디언이 중심이 돼 클래식, 월드뮤직, 영화음악,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보여줄 ‘흥기쁨 아코디언 앙상블’, 소리꾼 김수경을 주축으로 한 대구를 대표하는 국악밴드인 ‘퓨전국악밴드 나릿’의 공연이 진행된다. **조미경 기자**

영덕 영양
청송 청도
울릉 울진

영덕군, '지역특화형비자' 세 마리 토끼 잡는다

인력난·인구감소·지역경제 해결 기대 한국말 능통한 유학생, 5년이상 거주

영덕군은 '지역특화형비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역 인구감소, 지역업체의 인력난 지역의 경제 활력 저하 등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한다.

지역특화형비자 시행으로 영덕군은 '인력난' '인구감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특화형비자제도'는 외국인 정책 차원에서 지역의 정확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비자 사업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해 지자체의 생활

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해 추진 되는 사업이다.

현재 지역 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는 근무 기간이 가장 4년 10개월인 고용허가제(E-9)에 의한 근로자와 가장 8개월인 농수산물가 계절 근로자(E-8)가 있으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언어소통이 어렵고 체류기간이 짧아 장기근무가 불가능하다.

한편 '지역특화형비자사업'은 지역특화형우수인재(F-2-R) 및 지역특화형 외국인직접투자(F-4-R) 유형이 있다.

현재 영덕군이 중점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국내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 또는 졸업 예정인 유학생이거나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70% 이상 되는 근로자 등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고 지역 내 수산업, 농업, 각종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 공공행정, 사회복지 서비스 등 26개 업종에 취업하는 조건으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F-2-R)를 발급 해 주는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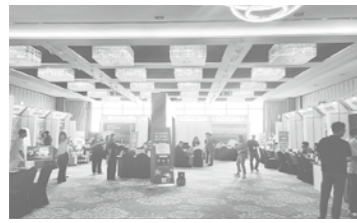
또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초청해서 함께 살 수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 취업 활동도 할 수 있게 되며 자녀들이 지역의 교육기관들을 이용하게 되어 장기간 지역에서 정주하며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지역의 상주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경기 활성화와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한편 영덕군에서는 지난 6월 24일에는 영덕로하스수산물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수산물 가공업체 30여 명의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

지는 등의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수산업, 카페, 음식점 등에서 구인 요청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으며 지난 7월 10일에는 영덕지역의 수산물가공업체, 카페 등에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 11명이 영덕을 방문해 업체를 둘러보고 업체 대표와 면접을 하였으며 이후 지역의 M업체, G업체 등에서도 구인 요청이 들어와 외국인 우수 인재의 지역 내 취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외국인은 K-드림외국인지원센터(<https://k-dreamcenter.co.kr>) 구인·구직 등록을 통한 취업 연계가 가능하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영덕군 인구정책팀(730-6643) 영덕군가족센터(730-7372)로 하면 된다. **조여은 기자**



청도 워크케이션 박람회 참여

청도군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제주 캠퍼트리 호텔 엘리조트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워크케이션 박람회에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관으로 워크케이션(workation) 트렌드를 반영해, 일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업무 환경을 제시하며 다양한 기업, 전문가 그리고 관심 있는 지자체가 참여하여 B2B(기업 대 기업) 상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청도군은 작년 선정된 청도관광 9경 외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워크케이션에 최적화된 '청도 신화랑풍류마을'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함께 홍보했다. **조여은 기자**



영덕군가족센터, 수료생 확대

영덕군가족센터는 평생학습 실현을 위해 운영하는 고품격 시니어 맞춤 프로그램인 '실버아카데미'가 5기 수료와 함께 수료생 1600명을 돌파했다.

실버아카데미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으며, 이 기간 동안 실버아카데미는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들의 건강과 사회적 활동을 증진 시키는데 주력해 왔다.

요가, 에어로빅, 트로트 댄스 등의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였고, 퀵트 자수, 한지공예, 도자기 공예, 노래교실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자아 발견과 문화 생활을 즐기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세대 소통교육, 자산관리, 웰다잉, 피부·두피 관리법 등의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여 실생활에서 유용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조여은 기자**

청도군-한국철도, 업무 협약

청도군은 지난 16일 서울역 3층 맞이방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부부처, 공공기관, 23개 지자체가 참여한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한국철도공사, 농어촌공사 사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23개 지자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여은 기자**



영양군, 제43회 경북도지사기 유도대회 개최

제105회 전국체전 대표선수 최종선발대

영양군은 지난 14일 군민회관에서 제43회 도지사기유도 대회를 개최했다.

경북도유도회가 주최하고 영양군유도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임원 50명, 선수 280명, 총 330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선수들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이번 대회는 단체전(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생활체육), 개인전은 선수부(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클럽부(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로 구

성되며 체급에 따라 3분 또는 4분단위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대회 다음 날인 15일 군민회관에서 제105회 전국체전 2차 및 최종선발대회가 열렸다.

150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남고부 9체급 여고부 8체급 등 18명이 선발됐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에서 유도 발전을 위한 뜻깊은 대회가 열린 걸 기쁘게 생각하며, 영양군은 대표적인 유도전지훈련의 메카로서 매년 수백명의 유도인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여 영양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에 유도 전지훈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을 방문하는 유도인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청송군, 노인일자리사업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 선정

청송군은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상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노인일자리수행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사업 수행결과를 종합 평가한 것으로, 노인일자리 추진 실적과 우수수행기관 인센티브를 적용 후 합산하여 우수한 지자체와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청송군은 올해 총 160억 원의 예산으로 4천100여 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사업을 확대해 어르신들의 소득기반제공과 사회참여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수행기관인 청송시니어클럽의 뛰어난 사

업 역량으로 △노-노케어, △청송군안전관리단, △스마트폰교육지원, △은모닝도시락 등 23개 사업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실적을 인정받아 청송군은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청송시니어클럽은 2년 연속 우수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어르신들께 다양한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수행기관과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노력한 결과로 이러한 쾌거를 이루었다."며 "일자리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영덕군 콘서트오페라 '사랑의 묘약 환호 속 막내러

(재)영덕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6일, 경상북도 도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콘서트오페라 '사랑의 묘약' 공연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북도 도립교향악단을 초청해 선보인 '해설이 있는 콘서트오페라 사랑의 묘약'은 오페라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 아동과 청소년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클래식의 저변 확대를 위해 기획됐다.

이번 공연은 특히 지역 청소년과 교사 등 600여 명이 대극장 전석을 채웠고 보기 드문 오페라 관람이라는 소중한 경험을 공유했다.

오페라 사랑의 묘약은 가에타노 도니체티의 대표작으로 순박한 청년 농부 네모리가 짝사랑하

는 아다나의 마음을 얻기 위해 돌팔이 약장수 돌카리아에게 사랑이 이뤄지는 묘약을 사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스토리를 유쾌하게 다룬 코믹 오페라이다.

이번 공연은 정상급 성악가 5인이 배역을 맡아(사랑의 묘약)의 주요 아리아를 들려주었고 중간 중간 해설가 김유환이 흥미로운 해설을 곁들여 초심자도 오페라 전막을 관람하는 것처럼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한글 자막을 통해 스토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국어 대사는 물론 영덕군의 상황에 맞는 웃음 코드를 배치해서 색다른 재미를 제공했다. **조여은 기자**

K-water 청송권지사, 수도요금 지원

청송군은 17일 K-water 청송권지사가 독거노인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번 프로그램은 수도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독거노인 450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요금을 지원하며, 총 4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우석 청송권지사장은 "2017년부터 청송군으로부터 지방상수도 운영관리를 수탁받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라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청송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울진바지게시장 토요일 야시장 개장

시장으로! 흥과 정이 함께하는 여름밤으로!



울진군은 오는 19일 울진바지게시장에서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다시 시장으로! 바지게 토요일 야시장' 행사를 개최한다.

울진바지게시장 '토요일 야시장'은 점체된 전통시장 활성화와 특화된 야간관광명소 도약으로 울진을 보다 많이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요일 야시장은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총 5회(7월 19일, 7월 20일, 8월 9일, 8월 10일, 8

청도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안전보건 점검

청도군은 지난 15일부터 3일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근무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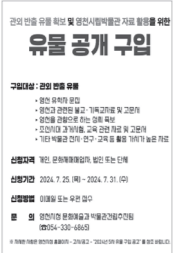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근로의사가 있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하반기에는 새마을운동발상지, 청도읍성, 신화랑풍류마을, 청도박물관 등 사업장 10개소의 현장 근로 참여자들의 안전보건을 자체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 파악, 안전 수칙 준수 및 보호구 착용을 안내하고 특히, 폭염 속 온열질환에 대비해 참여자들이 건강과 안전에 더욱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조여은 기자**

영천 영주 봉화 의성 고령 성주

영천시 5차 유물 공개 구입



영천시는 시립박물관의 전시·교육·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관외 반출 유물을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공개 구입한다.

시립박물관의 부재로 여러 유물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만큼, 이번 유물 공개 구입은 관외로 반출된 유물들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공개 구입 대상은 △영천 유학자 문집 △영천과 관련된 불교·기독교 자료 및 고문서 △영천을 관향으로 하는 성씨 족보 △조선시대 과거시험, 교육 관련 자료 및 고문서 △기타 박물관 전시·연구·교육 등 활용 가치가 높은 자료가 해당된다.

매도 신청 유물은 출처가 분명하고 전시 가능한 수준의 보존 상태와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유물 감정평가와 심의를 거쳐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 자세한 절차는 영천시청 홈페이지 - 고시/공고 - '2024년 5차 유물 구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관련 서류를 31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jeoney@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유물 공개 구입을 통해, 영천시 관외로 반출된 역사적으로 귀중한 자료들을 확보해 박물관 전시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예술과 박물관건설추진팀(☎054-330-6865)으로 문의하면 된다.



봉화군, 건강관리·재난심리지원

봉화군은 7월 한 달 동안 춘양면 학산리와 서동리, 봉성면 우곡리 오그래미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건강상담과 재난심리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상담은 연일 계속되는 집중 호우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일상 회복을 돕고자 마련됐다.

지난 11일부터 12일에는 춘양면 서동리와 학산리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찾아가 주민 34명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등의 만성질환 건강상담과 함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재난심리검사를 실시했다.

불안·우울 등의 증상이 있는 주민에게는 추가 검사와 더불어 심호흡법, 나비포옹법 등의 안정화 기법을 교육했으며, 참석자들에게는 일상 회복과 심리 안정을 돕기 위해 안대, 귀마개, 마사지볼, 아로마향 등으로 구성된 마음안정키트도 배부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주민들이 트라우마로 불안, 우울 등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심리 지원으로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성기기자

고령군, 도시브랜드 '가아가 빛은 고령' 공개

20년만에 바뀐 새 BI, 캐릭터 개발

고령군이 젊어지고 있다. 젊은고령을 추구하는 고령군은 시대에 맞는 참신한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BI)와 캐릭터를 17일 공개했다.

지난 11월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상시 보고회, 중간 보고회를 통해 전문가 자문과 온·오프라인 군민 선호도 조사를 바탕으로 기본디자인을 확정하고, 이달 응용디자인 개발을 완료했다.



20년만에 바뀐 '가아가 빛은 고령'이라는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은 대가야의 찬란한 유산과 신비로운 문화로 빛어낸 도시, 지산동 고분군이 펼쳐진 형상을 가아가 빛어 만들어 놓은, 가야로 인해

만들어지고 이루어진 도시를 의미한다. 고분군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원형의 이미지를 살리고 라운딩 된 서체로 능선을 자연스럽게 표현했다.

대가야 특유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나타내는 녹색과 노란색을 디자인에 담았다.

고령을 지켜온 군 캐릭터 '가아들이' 또한 리뉴얼되었다. 기존 컨셉을 유지하되 올드한 이미지를 트렌드에 맞게 귀엽고 강렬한 이미지로 업그레이드 하여 다양한 제작상황과 미디어, 모바일 등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변화했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새로운 도시브랜드 개발로 세계유산도시 고령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시공간, 시설물, 홍보매체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알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배영백기자

영천시, 아이돌봄 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영천시는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3년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에서 A등급(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227개소를 도시, 도농, 농촌 등 3개 그룹으로 분류해 아이돌봄비 활동, 서비스 제공, 예산집행, 서비스 점검 사후 조치 등 업무 전반을 다뤘다.

영천시는 도농지역 그룹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전국 상위 34개 기관에 선정됐으며 2018년, 2020년, 2023년에 이어 4번째 선정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능력이 탁월함을 입증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양육 공백으로 돌봄이 필요한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아이돌보미 128명이 활동하고 있고, 443명의 아동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한편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은 12월 전국 아이돌봄 서비스 소통의 날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최은하기자

의성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의성군이 오는 26일까지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의성군청 발전에 관심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제안이 가능하다.

제안사업의 유형으로는 일반주민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일반공모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공모가 있다.

그 밖에 주민자치회에서 회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는 자치계획형사업이 있다.

접수된 제안사업은 사업부서의 검토와 의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산안에 반영되고,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본예산에 최종 편성된다.

공모 제안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및 또는 읍면사무소로 방문 접수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기획예산과(054-830-6059)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의성군은 지난해에는 주민 제안사업으로 125건(31.5억원)이 접수되어 최종 30건(2.8억원)이 선정,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현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세대공감프로젝트 '우리, 진로를 고민하다'(20백만원) △봉양면 진입로 미화사업(18백만원) △안계면 고향사랑 예술나들이(15백만원) △안사면 알아가기 흑백사진 전시회와 달력(13백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박재성 기자

봉화군, 더위야 물러가라~! 신명나는 음악회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상운면편 성료

봉화군 상운면은 지난 16일 상운면 밀레니엄복지관 야외무대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열린음악회-상운면편이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음악회는 예술로 더위를 식히자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봉화군의원 및 상운면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상운면민 150여 명이 참여했다.

한국예총 봉화지회가 주관하고, 봉화군이 후원하는 이번 음악회는 총 8개의 공연팀이 참여해 다양한 무대를 선사했다.

특히 상운풍물팀, 상운국악팀(강창희 명창 외),



의성 고운사 가운루,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조선 중·후기 건축 양식 예술적·학술적 가치 인정

의성군은 17일 '의성 고운사 가운루'가 국가지정 문화유산(보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고운사 가운루는 지난 4월 9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지정예고와 2024년 제6차 건축분과문화유산위원회 심의(2024. 6. 20.)를 거쳐 이날보물로 지정됐다.

가운루는 계곡을 가로질러 배치한 사찰 누각 중

가장 큰 규모의 누각이다. 계곡으로 인한 지형의 높낮이 차이를 기둥의 높이와 간격 너비로 해결하는 구조 형식 등으로 기존 사찰의 누각과는 다르게 자연과의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조선 중·후기 유행하던 건축 양식이 잘 남아 있어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고운사에는 이미 보물로 지정된 고운사 연수전과 고운사 석조여래좌상에 이어 가운루까지 보물로 지정돼, 사찰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더욱 높아졌으며, 의성군의 대표 사찰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고운사 우화루, 일주문, 고운사아미타불회도, 천수관음보살도도 국가문화유산으로 심의 중으로, 이들 문화유산도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면 고운사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보물 지정은 고운사 가운루의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큰 자부심을 심어줄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가운루가 잘 보존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영주시, '너와 함께할 전통시장' 지도 제작

관내 시장 한눈에 ... 전통시장 활성화 초석

영주시는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내 전통시장 정보가 담긴 '너와 함께할 (영주 전통시장) 지도'를 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도 제작은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을 목표로 추진됐다.

시는 관내 12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안내를 통해 방문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친근한 전통시장 이미지를 형성해 가족 단위 소비자들의 방문

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도는 전통시장 위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보기 쉽게 제작됐다. 또한 시장별 연혁소개 및 특화상품 안내, 영주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관련 정보도 함께 담겨 있다.

시는 제작한 지도 8천 부를 관내 전통시장, 관광안내소, 영주역, 풍기역, 영주시외버스터미널 등에 비치할 예정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상거래의 중심으로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며,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전통시장을 이용해 지역경제 살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

고 말했다. 현재 시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빈점포 입점 상인에게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주군, "새 차로 더 안전하고 편하게 다니세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차량 공모사업'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을 대상으로 2024년 차량지원 공모사업을 실시한 결과, 성주군이 복지차량 4대를 지원 받게 됐다.

복지차량 지원 공모사업은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단체)에서 매년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4:1의 경쟁을 뚫고 성주군이 4대의 차량을 확보했다.

차량 지원 대상기관은 밀알센터, 실로암육

아원, 우주봉의집,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으로 승합차 2대와 승용차 2대를 연말까지 지원 받는다.

지원되는 복지차량은 각 시설과 기관으로 보내져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이용될 예정이며, 일부 차량유지에 드는 비용은 군에서 지원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올해에도 관심과 노력으로 차량지원사업에 선정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소중한 성금으로 지원받은 복지차량이 관내 취약계층에게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잘 관리해 달라"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도재훈 기자

창간 28주년

※ 접수기간 : 선착순(입금자순)마감

2024 대구광역시일보 영덕 사랑나눔 gOLF 큰잔치



7월 24일 수요일 | 참가자 전원
영덕오션비치 골프&리조트 | 기념품 증정
행운상 푸짐

2부 시상식 및 유명 연예인 공연
□ 행사장소 : 오션비치 2층 대식당

참가규모 총40팀(160명)

접수기간 ~**선착순마감**(입금자순)

2024년 7월 24일 오전 11시 13분 ~ 순차티오프

참가신청

- 참가자격 : 전국 남·여 아마추어골퍼
- 당일 참가비 : 23만원(그린피18h, 카트1회, 저녁만찬, 참가 시상품등)
- 1박2일 참가비 : 45만원(그린피36h, 카트2회, 저녁만찬, 숙박, 조식, 참가 시상품등)
- 참가비 입금계좌 : 대구은행 508-11-147821-4
예금주 : 김영숙
- 선입금 : 선착순마감(신청확정 후 취소시 환불불가)※본인이 양도는 가능
- 참가문의 : 대구광역시일보 사업국 1600-5458
담당 010-4473-4473

시상내역

- 매달리스트(통합) : 아이언세트
- 신페리오 우승(통합) : 풀세트
- 신페리오 준우승(통합) : 아이언세트
- 신페리오 3위(통합) : 드라이버
- 니어리스트(남·여) : 퍼터
- 롱 기스트(남·여) : 드라이버
- 이글상, 최다 버티, 파, 보기, 더블파등
기타 상품지급!

<대회 참가 연예인>



사회 김용일



가수 유순실



가수 백봉기



가수 양혜승

※출연 연예인은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음.